

# 미세먼지 덮치고, 코로나 확산해도...

### 도내 관광명소마다 '복적' 5-8일 15만명가량 입도 전년동기보다 53% 증가 도민 "코로나 외부유입 걱정되고 n차감염 우려"



지난 5-8일 15만명가량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가운데 도내 주요 관광명소마다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사진은 8일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 공영주차장 모습. 이태윤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주지역에는 하루 평균 3만5000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어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관광객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외부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지역내 'n차감염'도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어린이날인 지난 5일부터 어버이날인 8일(주말)까지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는 14만88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만8701명)보다 52.8%가량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15만5741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누적 관광객은 28만51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2264명보다 65.5% 늘었고 일 평균 3만5645명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서귀포시 용머리 공영주차장에는 렌터카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어 빈 주차 공간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산방산, 중문해수욕장, 성산일출봉 등 도내 유

명 관광지에는 가족단위에서부터 연인, 친구 단위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이날 관광객들은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관광에 나서고 있었지만, 관광지 주변 식당 앞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마스크를 벗고 음료수를 마시거나 흡연을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코

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코로나19 외부유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확진자 접촉에 따른 지역내 'n차감염'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도방역당국은 초비상 상태다.

지난달 제주 확진자의 67%가 관광객이거나 다른 지방 확진자와 접촉한 제주도민, 해외입국자 등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 제주지역에서는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거나 감염 경로 미상인 확진자도 9일 기준 60여명에 달하고, 지난 8일 하루 동안에만 1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도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행사와 모임 등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부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 등을 찾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며 "최근 제주지역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모임과 행사를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윤기자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양력 5월 19일)을 앞둔 9일 제주시 노형동 선린사에 연등이 내걸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이 땅 위에 따스한 희망의 빛이 퍼지길 기원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갑자기 '툭'... 여러 번 사고날 뻔"

### 차로·인도 불문 불법질주 전동킥보드 위험천만 경찰,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단속



최근 제주지역에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이 보급되면서 고라니처럼 아무데서나 도로상으로 출몰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로 인해 운전자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때문에 여러 번 사고가 날 뻔했다는 도민 A(30)씨는 "전동킥보드가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골목길에서도 양 옆을 확인하지 않고 좌우회전을 하면서 갑자기 들어와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번 아니다"며 "킥라니, 자라니(자전거+고라니) 때문에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다.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운전자만 피해를 보게 돼 당장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시민 B(67)씨는 "킥보드 운전자들이 도로 가장자리가 아닌 인도로 돌아다니는 불안하다"며 "인도가 좁은 곳일 때 옆으로 바짝 붙어 지나가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마음을 졸인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이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페달 없이 전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이에 속한다.

이들 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최근 3년간 총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에는 20대 관광객이 전동킥보드를 대어한 후 응답해안도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부주의로 도로에 설치된 스틸 블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들이받아 사망하기도 했다.

개정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만 16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과태료, 전동킥보드에 동승자 등 2명 이상이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1만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 통행 등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 "제 식구 감싸기 하지 말라" "의료법인 설립·운영 성매매 경찰 강력 처벌 촉구 지침 변경 중단해야"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게 된 현직 경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성매매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조직은 법의 집행 및 범죄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영향력에 맞게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강민성기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JDC와 제주도정이 추진중인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은 의료의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높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운동본부는 지침 변경과 관련해 "의료법인이 설립한 건물이 아닌 타인이 임차한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이미 개설해 놓은 각종 영리사업과 결합한 편법적 부대 사업과 각종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며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회적인 영리병원의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태양광설비 정부 보조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9호]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00호]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사업 공고

###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신청 기한 : 단독주택 예산 소진시까지 / 상가건물 5월 11일까지

상담 접수 : 제주솔라에너지(주) 742-5775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2021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e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